

## 제16차 열대의학 세미나에 참석하고

- 열대질병의 치료 및 예방관리대책을 논의 -



민 득 영

이번 제 16차 세미나의 주제는 간(肝)과 담관(膽管)계통에 침범하는 전염성 질환과 기생충 질환을 주제로 간염(肝炎), 간암(肝癌), 간에 기생하는 기생충 병들에 대한 국내외 관계자들의 국제적인 세미나였다.

연 세대학교 열의대학연구소(소장 소진 탁박사)가 주최하는 열대의학 세미나가 서울 여의도의 사학연금회관에서 9월 23일부터 9월 27일까지 5일간 개최되었다.

이번 세미나는 16회째로 벌써 16년째 개최되었는데 특히 금년에는 제28차 동남아세아 열대의학기구세미나와 공동으로 개최되어 외국서만도 동남아세아를 중심으로 17개국의 60여명이 모였고 국내에서는 연인원 500여명이 참석한 명실공히 국제적인 학술모임이었다.

열대의학이라고 하면 의학계통의 사람들도 생소한 분야로 알고 있으나 사실은

우리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의학의 한 분야이다.

열대의학(熱帶医学)은 말 그대로 열대병(熱帶病)을 대상으로하는 학문이다. 일반적으로 열대지역이나 아열대지역에 흔히 만연하고 있는 병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요즘 처럼 교통이 발달하고 해외나들이가 많은 시대에서는 언제 어떠한 경로로 더운 지방의 병들이 옮겨질지 모르고, 실제로 옮겨지고 있어서 근래에야 관심들을 갖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장티프스나 콜레라등 전염성 세균질환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기생충병들도 원래는 열대지역에서부터 유

⑥ 생활환경이나, 보건지식향상을 높이기 위해 1983년에 간염박멸 5개년 계획을 시행하고 있으며 88년까지는 1700만 정도까지 간염예방 접종을 계획하고 있으며, 간염조사를 위한 기구나 약품을 무료로 전국의 보건소나 모자보건센터에 보급할 예정을 밝혔다. ⑥

래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병들이 더러는 한 지역이나 국가에 토착화 되었을 때 우리는 토착병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런 토착병은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관리되어 기생충병의 경우 급격히 감소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이 퍼져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우리나라에 없었던 열대병들이 몰래 수입(?) 되고 있어 문제화되어 있다. 중동지방이나 동남아시아, 아프리카지역으로부터 말라리아(학질), 주혈흡충병, 리슈마니아병, 사상충병등이 들어왔고 콜레라같은 극히 위험한 병들도 간혹 들어와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앞으로 86아세아게임이나 88올림픽게임을 추최하는 입장에서 이러한 열대병들은 서로 오가는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보건문제가 아닐 수 없으며, 연세대학교 열대의학연구소가 매년 개최하는 열대의학세미나는 국가간의 보건정보교환과 관리대책을 논의하는 모임으로 매우 의미깊은 것으로 생각된다.

이번 제 16차 세미나의 주제는 간(肝)과 담관(膽管) 계통에 침범하는 전염성

질환과 기생충질환을 주제로 하였는데 중점적으로 논의된 것은 간염(肝炎), 간암(肝癌), 간에 기생하는 기생충병들이었다.

첫날 오전은 조직위원장인 소 진탁 박사, 연세대학교총장 안 세희박사, 이헌기 보건사회부차관, 문 태준 대한의학협회회장, 밀러박사(국제열대의학회 회장) 및 나카시마(WHO 서태평양지역사무총장) 등의 개회사, 축사, 격려사가 있었고 끝이어서 참가 각국의 간염(肝炎) 현황과 관리대책이 발표되었다. 오후 역시 각국의 간염관리대책이 계속 발표되었는데 특히 우리나라를 대표하여 보건사회부의 보건국장인 유 원하 박사가 우리나라의 입장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간염은 전국민의 약 9%가량 전염되어 있고 이렇게 높은 이유로 공업화되면서 사람들이 밀집하여 살게되고(특히 도시의 경우) 불결한 생활주변과 공중보건에 대한 국민의 무관심을 지적하였다. 실제로 간염은 더러운 생활환경, 주방, 식당, 주사기, 혈청제



강물에서 세면이나 목욕시 주혈흡충의 셀카리아가 피부를 뚫고 감염 된다.

앞으로도 열대질병에 대한 모임을 자주 갖고 치료, 예방 등 관리대책을 논의하여야 하며, 국내유입을 막기 위한 정부와 국민각자의 관심이 높아져야 한다는 제16차 열대의학 세미나의 결론이다.

재에 의해 옮겨지며, 산모에게서 태아에게로, 밥을 씹어먹이는 엄마에게서 어린 아이로도 옮겨지고 있다. 유원하 국장은 이러한 생활환경이나 보건지식향상을 높이기 위해 1983년에 간염박멸 5개년계획을 시행하고 있으며 88년까지는 1700만 정도까지 간염예방접종을 계획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그때까지는 간염조사를 위한 기구나 약품을 무료로 전국의 보건소나 모자보건센터에 보급할 예정임을 발표하였다.

이들께 역시 간염에 대한 연구와 진단 방법, 전파방법등이 발표되었고 오후에는 예방과 관리대책에 대한 원탁토론이 있었는데 결론으로 예방접종을 철저히 하고, 개인이나 공중위생환경을 개선하며, 적절한 보건교육을 시행해야한다는 의견을 모았다.

3일째는 간질환을 일으키는 기생충에 관한 발표가 있었는데 동남아세아에서는 주혈흡충과 간디스토마,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간디스토마에 관한 것이 주로

발표되었다. 특히 간디스토마는 간손상 뿐만 아니라 간암(肝癌)을 유발할 수도 있음을 인정하고 실험적으로 흰쥐의 간의 변화를 보고하여(이화여대 기생충학 민 흥기 박사) 우리나라에서의 간디스토마 박멸사업이 중요함을 시사하였다.

4일째에는 간암(肝癌)에 대한 병인론(病因論), 예방, 치료, 대책등이 발표논의 되었는데 비슬리교수(미국 워싱턴대학)는 간염예방을, 부락교수(태국 마히돌대학)은 간디스토마감염예방을, 핫산교수(수단 카르툼대학)는 영양문제를, 그리고 김병수교수(연세의대, 암센터소장)은 최근 치료요법에 대하여 발표 논의 되었다 결론은 간염과 간디스토마예방과 특히 아플라톡신이라는 곰팡이(음식물에 끼는

곰팡이)의 전파방지, 섭생예방과 조기진단 및 적절한 치료로 집약되었다.

마지막날에는 오전에만 각종 질병에 대한 발표가 있었고 오후에는 서울시내 관광이 있었으며 저녁에는 서교호텔에서 조직위원장 소 진탁박사가 주최하는 저녁만찬이 있었는데 각국의 노래자랑(?)이 벌어져 본 세미나의 성공적인 개최의 마지막을 화기에애한 가운데 장식하였다.

필자가 본 세미나에 참여하고 느낀 것은 앞으로도 열대질병에 대한 모임을 자주 갖고 치료, 예방등 관리대책을 논의 하여야 하며 국내유입을 막기 위한 정부와 국민각자의 관심이 높아져야 한다는 점이었다.

<필자 = 한양의대기생충학교수 · 의박>

## 해외 의학정보

### 혀를 통한 自家健康진단法

△ 평소보다 혀가 부어오른듯하며 색깔이 붉고 얼얼한 느낌이 들 경우 이는 비타민결핍증을 나타낸다. 비타민B와 C는 혀점막의 건강상태를 유지시켜 주는데 부족할 경우 음식 맛을 아는 혀의 기능이 떨어지고 음식을 씹고 삼키는데도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

△ 혀의 크기가 커지고 변들거릴 경우 이는 갑상선 기능부전증과 관계가 있다. 이같은 증세는 특히 나이 많은 여성에게서 흔히 나타나는데 이와함께 체중감소 탈모 우울증 세등도 갑상선기능부전증과 관련이 있다.

△ 혀가 검은 갈색을 띤 경우는 흡연가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이는 건강이상의 표시는 아니므로 양치질할 때 칫솔로 혀를 닦아내면 된다.

△ 혀는 몸의 이상을 대변해줄뿐 아니라 혀자체의 건강여부도 말해준다.

혀의 표면이 전과 달리 얼룩덜룩하다면 이는 구강암일 가능성이 크다. 구강암은 처음에는 전혀 자각증세없이 갈색과 검은 색이 증가하다가 피부종양으로 확산된다.

또 다른 형태의 구강암은 자각증세없이 혀가 미끈거리고 백태같은 흰 부분이 늘어가는 것으로 나타난다.

비타민결핍증에서 갑상선기능부전증을 거쳐 암에이르기까지 일단 혀가 몸의 이상을 말해주는 곧 의사를 찾도록 할 것.